

# 개도국 산업분석 리포트

【산업이슈분석 2010-12】

2010. 11. 11.

## 필리핀 금융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목 차

I. 필리핀 금융산업 개요 .....	2
II. 금융산업 최근 동향 .....	5
III. 시사점 .....	12



## 필리핀 금융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 요약 -

- 필리핀의 금융산업은 은행산업이 총자산의 81%를 차지하는 등 은행 산업에 편중된 구조를 보임.
- 은행산업은 투자업무까지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상업은행 38개가 은행산업 총자산의 85.3%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마닐라 중심의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 은행 영업점의 대부분이 편중되어 있어 금융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함.
- 은행산업 총자산은 주변국과 비교해 작은 규모이나 최근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익성 및 안정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 오고 있음.
- 최근 지속적인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에 따른 국내 소비 호조로 소매 금융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은행간 M&A를 유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필리핀의 자본시장은 취약한 거래 시스템 및 작은 시장 규모 등으로 낮은 발달 정도를 보이고 있음. 채권시장의 경우 국채가 전체 채권발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채의 경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규모가 미미함.
-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소금융 지원 확대, ATM 기기 및 모바일 서비스 지역 확대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종합 발전전략이 필요함.
- 전산시스템, 조세제도 개편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자본시장 육성으로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임.



# I. 필리핀 금융산업 개요

## □ 은행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 필리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하에 은행산업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발달해 왔으며, 은행산업이 전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은행간 거래 제외) 중 2009년말 기준 80.7%를 기록함.
  - 동 비중은 1971년 73%에서 1996년 80%로 증가한 이후 80% 수준을 유지해옴.

## □ 재벌기업 소유의 금융기관간 경쟁 구도

- 필리핀의 금융산업 정책이 은행산업에 집중되어 오면서 일부 상업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발전하여 상업은행 업무 외에 보험업, 투자업 등 금융산업 전반의 업무를 취급하는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함.
- 또한 은행산업 중에서도 2009년말 기준 금융기관 총자산의 71.4%(은행산업 총자산 기준 85.3%)를 차지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상업은행의 상당 부분을 재벌가가 소유하는 형태를 보임.
  - 2009년말 상위 10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상업은행 중 총자산 기준으로 1위 (8,158억 페소)를 차지한 Banco De Oro Unibank(BDO)는 헨리 싸이(Henry Sy)의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 Group 계열이며, 싸이家は 9위 규모의 China Banking Corp. 또한 소유하고 있음.
  - 2위는 필리핀 재벌 조지 타이(George Ty)의 소유인 Metropolitan Bank and Trust Co.(Metrobank)이며, 필리핀 재벌기업인 Ayala Corp. 계열의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BPI)이 3위, 필리핀항공 등을 소유하고 있는 루치오 탄(Lucio Tan) 소유의 Philippine National Bank(PNB)은 6위를 기록하였음.



- Yuchengco Group의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과 Aboitiz Group의 Union Bank of the Philippines(UBP)는 각각 7, 8위를 기록함.

**<표 1> 주요 재벌가 소유 은행**

구 분	소유 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등
Sy家	Banco De Oro Unibank, China Banking Corp.	BDO Private Bank, American Express Bank Philippines
Ty家	Metropolitan Bank and Trust Co.	Philippine Savings Bank
Zobel de Ayala家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BPI Family Savings Bank, BPI Direct Savings Bank, Philippines Savings Bank
Lucio Tan家	Philippine National Bank	Allied Banking Corp. Allied Savings Bank
Yuchengco家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RCBC Savings Bank, Merchant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Aboitiz家	Union Bank of the Philippines	City Savings Bank

자료: Moody's.

- 4, 5위 규모의 국영은행 Land Bank of the Philippines(Landbank)와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DBP)는 농수산업 부문 대출 등 정책성이 강함.
- 외국계은행<sup>1)</sup>의 경우 17개의 상업은행(금융지주회사 5개 포함)이 영업중으로 2009년말 현재 Citibank만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상업은행으로 총자산, 대출규모, 예금규모 기준 모두 상위 10위 그룹에 포함됨.
- 필리핀 중앙은행은 외국계은행이 은행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있음.

1) 1994년 제정된 외국계은행진입법(Act Liberalizing the Entry and Scope of Operations of Foreign Banks in the Philippines and for Other Purposes)으로 한시적으로 추가 진입이 가능해져 총 17개로 증가하였으며, 동법에서 외국계 은행의 총자산 비중을 30%로 제한함.



**<표 2> 필리핀의 10대 상업은행 현황  
(2009년 말 기준)**

단위: 억 페소, %

순위	은행명	총자산	총대출	총예금	자기자본이익률 (ROE)
1	BDO	8,158	4,695	6,676	8.79
2	Metrobank	6,914	3,394	5,435	10.12
3	BPI	5,951	2,835	4,722	13.63
4	Landbank	5,106	2,102	3,967	17.20
5	DBP	2,921	1,258	1,240	10.46
6	PNB	2,816	1,021	2,152	7.80
7	Rizal Comm'l Banking Corp.	2,466	1,236	1,805	11.80
8	Unionbank	2,413	1,203	1,946	11.72
9	China Banking Corp.	2,305	1,056	1,917	15.49
10	Citibank	2,033	1,407	1,359	17.55

주: 순위는 총자산 규모 기준임.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 □ 짧은 발전기간과 불안정한 성장세

-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정치적인 혼란 등으로 수 차례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필리핀의 금융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는 1990년대 초 피델 라모스(Fidel Ramos) 대통령 집권 후 정치·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난 후임.
- GDP 대비 금융산업 비중은 1980년 102%에서 1983년에 117%로 상승하였으나 1988년에는 63%로 하락하였고, 1997년에 140%까지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104%로 다시 하락하는 등 필리핀 금융산업은 기복이 심한 불안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II. 금융산업 최근 동향

### 가. 은행산업

#### □ 은행수 및 지역별 분포

- 필리핀은 영업 허가권에 따라 은행의 종류를 구분하며, 크게 상업은행 (commercial bank), 저축은행(thrift bank), 지방은행 및 상호신용금고(rural and cooperative bank), 이슬람 은행(islamic bank) 등이 있음.
  - 이중 상업은행은 투자은행 업무까지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는 개념임.
  - 2010년 6월말 기준 필리핀의 은행수는 상업은행 38개(금융지주회사 19개 포함), 저축은행 74개, 지방은행 620개, 상호신용금고 41개로 총 773개이며, 지점수는 상업은행 4,558개(금융지주회사 4,044개 포함), 저축은행 1,255개, 지방은행 1,983개, 상호신용금고 116개로 총 7,912개임.
- 지역별로 마닐라 중심의 수도권(Region 4)에 95개의 은행 및 2,723개의 지점이 분포되어 있으며, 마닐라 남동쪽에 위치한 칼라바르존(Calabarzon, Region 13)에 142개 은행, 지점 1,151개, 마닐라 북쪽 루존(Central Luzon, Region 3)에 100개 은행, 지점 794개로 전체 17개 지역 중 세 지역에 은행의 43.6%, 지점의 59.0%가 집중되어 있음.
  - 특히 상업은행의 경우 수도권에 37개의 은행과 전체지점의 46.7%인 2,128개가 편중되어 있음.
  - 일부 지역에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17개 지역 중 13개 지역의 도시 및 지자체는 평균 은행수를 밀돌고 있음.



**<표 3> 필리핀 지역별 은행 분포  
(2010년 6월 말 기준)**



지역	은행 (비중)	지점 (비중)
Ilocos (I 지역)	53 (6.9%)	338 (4.3%)
Cagayan (II 지역)	35 (4.5%)	219 (2.8%)
Central Luzon (III 지역)	100 (12.9%)	794 (10.0%)
Nat'l Capital Region (IV 지역)	95 (12.3%)	2,723 (34.4%)
Bicol (V 지역)	38 (4.9%)	223 (2.8%)
Visayas (VI~VIII 지역)	150 (19.4%)	1,089 (13.8%)
Mindanao (IX~XII 지역)	94 (12.2%)	881 (11.1%)
Calabarzon (XIII 지역)	142 (18.4%)	1,151 (14.6%)
기타	66 (8.5%)	494 (6.2%)
합계	773 (100%)	7,912 (100%)

자료: BSP.

## □ 은행산업 규모

- 필리핀 은행산업의 총자산은 2009년말 기준 1,376억 달러, GDP의 85.6%로 주변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 비해 절대규모는 물론 GDP 대비 비율면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 4> 동남아 주요국의 은행산업 비교  
(2009년 말 기준)**

국가명	총자산 (억 달러)	총자산/GDP (%)	총예금 (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1인당 예금액 (달러)
필리핀	1,376	85.6	887	1,746	640
싱가포르	5,050	285.1	2,796	37,293	41,067
말레이시아	3,973	207.5	3,001	6,897	8,018
태국	3,105	117.7	2,101	3,940	3,094

자료: BSP, BMI, IFS.



- 대출 규모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 경제에서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커 전체 대출 수요는 낮은 편이며, 은행산업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규제로 예대비율이 2010년 6월 말 현재 66.1%로 낮음.
  - 필리핀 은행산업에 대한 감독기능은 중앙은행(BSP)이 담당하고 있음. 감독의 주안점은 리스크 관리로 동일인 한도를 은행 기본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자기자본비율도 10%로 규제하고 있음.
  - 또한 상업은행과 준은행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폐소화 예금의 19%를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함.

## □ 최근 영업실적

- 필리핀 은행산업은 2008년 9월 이후의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을 유지함.
  - 2010년 6월말 기준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9.1%, 정부채권 등 기타 금융자산은 전년대비 12.2% 각각 증가하여 총자산이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한 6조 2,955억 페소(약 1,46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당기순이익은 2008년에 전년 대비 34.2% 감소한 바 있으나 2009년에는 695억 페소로 전년 대비 67.7% 증가하였고, 2010년 6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21.7% 증가한 406억 페소를 기록함. 연간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비율(ROE)도 2010년 6월말 기준 각각 1.3%, 11.2%로 전년동기 0.9%, 8.1%에서 크게 개선됨.
  -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 NPL) 비율은 2008년 4.2%에서 2009년에는 3.7%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6월말 기준 4%로 소폭 증가함.
  - 2010년 6월 말 기준 예금잔액은 4조 7,541억 페소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대출잔액은 3조 1,427억 페소로 예대비율이 2008년 69.1%, 2009년 68.1%, 2010년 6월 66.1%로 예금잔액이 대출잔액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하락세를 유지함.





**<표 5> 필리핀 은행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월
영업비용/영업이익	65.5	64.0	65.2	74.0	65.8	65.2
ROA	1.1	1.3	1.3	0.8	1.2	1.3
ROE	8.8	10.6	10.8	6.9	10.8	11.2
순이자마진(NIM)	4.3	4.3	4.4	4.4	4.4	4.4
무수익여신(NPL)	8.4	6.1	5.0	4.2	3.7	4.0
예대율	72.4	69.3	70.9	69.7	68.1	66.1
BIS 자기자본비율	16.4	16.9	14.7	14.6	15.8	16.0

자료: BSP.

## □ 소매금융의 꾸준한 증가

- 해외근로자 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국내 소비 호조로 부동산 대출, 오토론,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은행산업의 주요한 성장 동원으로 부상함.
  - 2010년 6월말 기준 소매금융은 은행간 대출을 제외한 총대출잔액의 16.1%인 4,346억 페소로 2009년말 15.2%에서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거주용 부동산 대출과 오토론의 대출 비중이 증가함.

※ 필리핀 해외근로자 송금액(백만 달러)

14,450(2007년)→16,427(2008년)→17,348(2009년)→12,182(2010년 8월)

**<표 6> 필리핀 소매금융 비중**

단위: 억 페소, %

구분	2009. 6월	2009. 12월	2010. 6월
총대출잔액 (은행간대출 제외)	25,623 (100)	27,199 (100)	27,013 (100)
소매금융	3,986 (15.2)	4,131 (15.2)	4,346 (16.1)
거주용 부동산대출	1,648 (6.4)	1,626 (6.0)	1,737 (6.4)
신용카드	1,100 (4.3)	1,155 (4.2)	1,142 (4.2)
오토론	861 (3.4)	945 (3.5)	1,056 (3.9)
기타	377 (1.5)	405 (1.5)	411 (1.5)

자료: BSP.



## □ 지속적인 M&A 추진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최소 법정 자본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한 폐점 및 M&A 유도를 통해 1997년 1,003개에 달하던 은행을 2010년 6월말 현재 773개로 축소시켜 왔음.
  - BSP는 1999년 이후 미소금융을 제외하고는 은행(지점 포함)의 추가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2010년 11월에는 지방은행의 지역별 최소 법정 자본금 규모를 상향조정하였음.

## 나. 주식시장

### □ 주식시장 개요

- 필리핀의 주식시장은 1937년 마닐라 증권거래소 설립으로 시작되었으며, 현 주식거래업무는 1992년 12월 마닐라 증권거래소와 마카티 증권거래소가 통합된 필리핀 증권거래소(Philippine Stock Exchange Inc: PSE)에서 담당하고 있음.
- PSE는 영리목적의 기업으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규제를 받음.
  - 소유권과 거래권이 일치된 회원제 조직에서 2001년 거래법과 소유권이 분리되면서 주주로 이루어진 영리목적의 기업으로 재정비되었으며, 2003년 12월에 주식이 상장되어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음.

### □ 취약한 거래 시스템 및 시장 규모

- 필리핀 증권거래소는 개장 시간이 3시간 미만이며, 오전 중 전산으로 매매된 거래가 오후에 수작업으로 정산되는 등 거래 시스템이 매우 취약함.
- 2009년말 기준 시가 총액이 약 801억 달러, GDP 대비 49.8%로 주변국에 비교해 낮은 규모임.



<표 7> 동남아 주요국의 증권시장 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시가총액	1990	5,930	8,080	48,600	34,300	23,900
	1995	58,930	66,585	222,729	148,004	141,507
	2000	25,957	26,834	116,935	152,827	29,489
	2007	103,224	211,693	325,663	353,489	196,046
	2009	80,132	178,191	255,952	310,766	138,189
GDP대비 시가총액	1990	13.4	7.1	110.4	93.1	28.0
	1995	79.5	32.9	250.7	175.6	84.2
	2000	34.2	16.3	124.7	164.8	24.0
	2007	71.7	49.0	174.4	211.7	79.3
	2009	49.8	33.0	132.7	170.5	52.3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0.

## □ 최근 주식시장 동향

○ 2010년 11월 현재 총 256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최근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필리핀 주가지수(PSEi)는 4,400포인트대로 급등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1997년 7월 2,750포인트 수준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월 1,120포인트로 하락한 후 2003년 중반까지 1,000~1,5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음.
- 그 후 2003년부터 2007년 기간 3,960포인트까지 급등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다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세계금융위기로 2009년 3월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임.

<그림 1> 필리핀 주가지수(PSEi) 추이



자료 : [www.pse.com.ph/](http://www.pse.com.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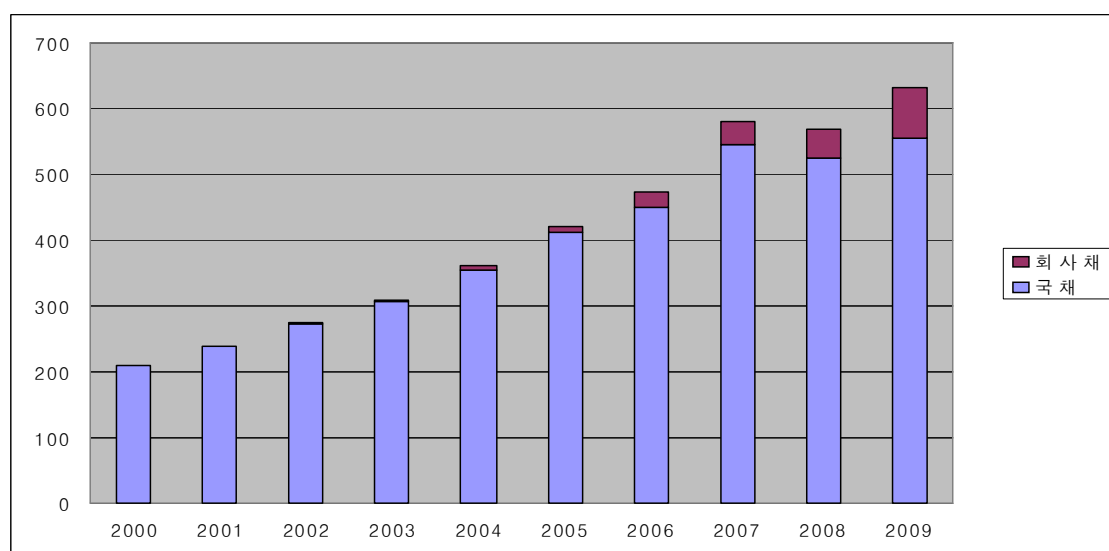


## 다. 채권시장

### □ 국채 위주의 채권시장

- 필리핀의 채권시장은 2009년말 기준 총 채권발행액 2조 9,120억 페소(약 630억 달러), GDP 대비 37.9%로 작은 규모임.
- 국채가 전체 채권발행액 중 87.9%인 2조 5,600억 페소로 채권시장이 국채위주로 형성되어 있음.

<그림 2> 필리핀 채권 발행 규모 추이



자료: Asian Bond Online.

- 회사채의 경우 2009년말 기준 전년대비 66.5% 증가한 3,510억 페소로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규모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며, 총 발행액의 36%를 국내 및 외국계 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음.
  - 상위 20개사의 회사채 발행액은 2,882억 페소로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미구엘 맥주회사(San Miguel Brewery)가 388억 페소로 1위이고, 2위는 330억 페소를 발행한 BDO, 3위는 206억 페소의 마닐라 전력회사임.



- 거래 시스템 발달 저조, 공신력 있는 회사채 평가기관의 결여, 거래 단계별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세제 등으로 인한 거래 비용 증가, 다양한 투자 계층 미발달 등이 회사채 시장 발달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옴.

- 필리핀 채권시장의 주요 투자자는 은행들로, 은행들은 폐소화 예금의 19%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법에 따라 상당 부분 국채의 형태로 준비율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 성향을 보임.

### III. 시사점

#### □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균형있는 금융산업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ADB의 통계에 따르면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준인 채권회전율<sup>2)</sup>이 필리핀의 경우 2010년 6월말 기준 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sup>3)</sup>.
- 필리핀 자본시장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중 과세 등의 불합리한 조세제도 정비를 통해 거래 비용 인하를 유도하고, 증권 및 채권 거래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향상이 시급함.
- 또한 채권거래시 절차, 인수 등에 있어서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정된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채권 발행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보험회사,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 육성을 통해 장기 투자층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됨.

#### □ 지역간 금융 서비스 불균형 해소

- 수도권 및 일부 도시권역에 편중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를 소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발이 시급함.

2) 연간 채권회전율 = (연간채권거래량/(연초채권발행량+연말채권발행량/2))\*100%

3) 2010년 6월말 기준 싱가포르의 채권회전율은 89%, 말레이시아 77%, 태국 74%, 우리나라 96% 등임.



- BSP는 최근 미소금융 확대를 통해 지역간 금융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미소금융을 취급하는 200여개의 은행을 통해 총 869,763명에게 66억 페소의 대출이 제공되었음.
- ATM 기기 및 모바일 banking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은행의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서비스 지역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우리나라 시스템 수출 등을 통한 필리핀 금융산업 지원

- 현재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은 외환은행이 유일하며, 동양그룹이 현지에서 설립한 Tong Yang Bank가 저축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필리핀 정부가 법적으로 외국계은행의 추가 설립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 은행의 추가 진출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필리핀에 전산 시스템 및 신용평가 시스템 등을 수출하고 기관간 직원 연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하여 양국간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 금년도 상반기 한국거래소가 PSE와 MOU를 체결하여 PSE의 증권거래 전산 시스템의 선진화, 파생상품시장 설립 등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필리핀 자본시장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조사역 이진경  
3779-6686, jinkyung22@koreaexim.go.kr